평생 모은 고승 유묵, 통도사에 전하다

김연호 선생, 3월 4일 기증식
수집 유물 196종 331점 기증
"문화유산, 함께 할 때 가치"
통도사, 관련 특별전 추진 예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목청 김연호 선생이 유물 196종 331점을 통도사성보박물관에 기증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3월 4일 주지실에서 '목청(牧靑) 김연호 성보문화유산 기증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연호 선생은 오랜 기간 수집해 온 유물 196종 331점을 통도사성보박물관에 기증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기증된 고승 유묵과 전적류를 포함한 성보문화유산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기증은 김연호 선생의 깊은 신심과 불교문화 보존에 대한 헌신이 담긴 결정으로, 불교 성보문화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원력의 표현이다.

김연호 선생은 "이번 기증은 50년 불교운동을 회향하는 자리이자, 불교정신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순간"이라며 "기증된 유물들이 반영구적으로 보존되면서 불교문화의 가치를 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대승기신론소'(운흥사판)를 비롯한 불교 서적 91종과 '경봉 스님 유물' 등 고승들의 글씨 작품 105점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승들의 유묵은 불교사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선사들의 수행과 사상이 담긴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김연호 선생은 "불교의 1300년 역사 속에서 스님들은 붓을 들고 수행과 가르침을 기록해왔다. 이번 기증이 그 정신을 보존하고, 많은 이들이 유물을 통해 불교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유산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제가 수십 년간 모아온 유물들을 통도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뜻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목청 김연호 선생은 1952년 경남 하동 진교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제천에서 수의사로 활동하며, 불자의식운동을 실천해 온 인물이다. 또한, 불교신자 결사 모임인 '우리는선우'의 제천지회장으로 활동하며 불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의 문화유산 수집은 1977년 청풍 지역 수몰로 인해 지역의 향토 유물이 반출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그는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수십 년간 다양한 유물을 수집해 왔다.

김연호 선생은 유물 수집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어린 시절, 마을의 형이 땅속에서 출토된 토기를 몰래 헛간에 숨겨 놓은 것을 보면서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회상했다. 이후 다솔사에서 환경스님을 만나면서 선서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승들의 서예작품을 꾸준히 수집해 왔다.

그는 과거에도 국립청주박물관, 월정사, 제천 의림지역사박물관 등에 총 1250점이 넘는 유물을 기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국민훈장과 충청북도 도민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前) 충북문화유산단 이사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이번 기증이 불교문화 확산과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특히 불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증된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보다 많은 이들이 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와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연호 선생님의 원력이 담긴 기증이 통도사의 수행 전통과 불교문화의 계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이번 기증을 기념해 김연호 선생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특별전을 기획 중이다. 전시는 기증된 고승 유묵과 불교 서적 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진응 스님은 "특별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증자의 뜻을 널리 알리고 불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광사, 소외이웃 위한 '따뜻한 쌀' 나눔

2월 29일 전달식 개최



광주 신광사(주지 동현 스님)가 2월 29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신광사의 아름다운 쌀 나눔'을 개최하고 신도들이 마련한 '자비의 쌀'을 광주지역 불교단체에 전달했다.〈사진〉

'자비의 쌀'은 지역 불교단체에 각 300kg씩 1800kg이 전달됐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동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도들이 후원한 쌀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도솔암, 방생 기금으로 자비 실천

600만 원 상당 생필품 지원



고창 도솔암(주지 성본 스님)이 정월 기도 회향 방생 기금을 이웃 공동체 후원물품으로 회향했다.〈사진〉

성본 스님은 2월 27일 자비신행회에 물품을 전달하며 "정초 기도 회향 시 방생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신도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필품 후원을 결정했다"며 "자비신행회와 협력해 필요한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600만 원 상당의 생활 물품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바램 △광주YWCA한빛타운 △광주YWCA솔빛타운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양행선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녹야선원, 아이들 위한 와플 나눔

2월 27일 전달식 개최



광주 녹야선원(주지 아도 스님)이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와 공동으로 2월 27일 광산구 송광종합사회복지관 2층 송광한사랑방에서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직접 만든 와플 간식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와플은 송광어린이집, 송광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송광정신재활센터 등 200여 명에게 전달됐다.

2년째 간식을 전달하며 '찾아가는 포교'를 진행하는 아도 스님은 "불자들이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틈을 내 사회 선한 영향력 차원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주 보람된 것"이라며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봉사를 하니 더 보람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붓다봉사단·진안군봉사센터 MOU 체결

지역 현안 해결 함께 하기로
협약 후 지역에 찐빵 나눔도



(사)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총괄이사 현진 스님)와 (사)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요섭)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사진〉

3월 5일 협약식을 체결한 이들은 △인적·물적 교류 협력과 정기적인 공동 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해외 봉사활동 지원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개발 및 교류협력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붓다봉사단은 매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화와 연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 후 붓다봉사단은 지역 주민과 직장인,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와 찐빵 나눔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지역 주민 300명에게 따뜻한 국수와 찐방을 함께 나누며 온정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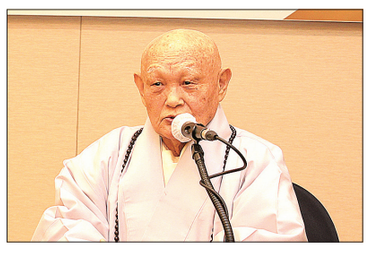
(사)붓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작은 나눔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붓다봉사단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진 스님(붓다봉사단 총괄이사)도 "자비나눔 활동은 불자로서 중요한 덕목"이라며 "따뜻한 국수와 찐빵을 통해 몸과 마음을 채우고 다시 일상의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정사 원행 스님 "물질 집착이 갈등 양산"

대한언론 문화포럼, 특별 강연서 법문



대한언론문화포럼이 주최하는 제2차 문화포럼이 2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대산 월정사 선덕(禪德) 원행(遠行) 스님이 연사로 초청되어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을 주제로 법문했다.〈사진〉

원행 스님은 강연에서 "물질보다 정신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대사회가 지나치게 물질적 풍요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나눔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화합과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과 국운의 방향에 대한 철학적, 도교적, 불교적 관점을 결합한 내용이 중심을 이뤘다. 탄허 스님의 생전 법문 영상 등도 대중에게 소개됐다.

특히 '지축의 변화와 인류 문명의 흐름' 주제 강연서는 지구 자전 운동과 인간 사회의 변화를 연결 지어 해석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언론인회 측은 "이번 강연은 단순한 역사적 고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시대적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남해 용문사, 어르신 위한 만발 공양

3월 26일까지 상주면 일원서



경남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을 마련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3월 5일부터 26일까지 상주면 내 9개 마을 어르신 4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행사가 열리는 각 마을의 식당에서 건강 보양식을 제공된다.

만발공양은 3월 5일 금양마을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3월 6일 대량마을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지 승원 스님은 "상주면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연염색 명장 용경 스님 후광갤러리 초대전 개최



천연 염색을 수행으로 삼아온 용경 스님(보문사 주지)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예산 후광갤러리에서 '천연염색 명장 용경 스님 초대 작가전'을 개최한다.〈사진〉

용경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스님이 직접 키운 쪽(藍, Indigo)을 활용해 염색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용경 스님은 "'쪽빛'은 불교에서 청정과 지혜를 상징하며, 염색 과정은 수행자의 마음 닦기와 닮아 있다"고 말했다.

용경 스님은 밀양 보문사에서 오랜 시간 천연 염색 과정을 수행으로 삼아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천안 각원사 불교대학 제24기 입학식 개최



천안 각원사불교대학(학장 대원 스님)이 3월 2일 대웅보전에서 제24기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입학식에서는 170명(주간 79, 야간 91)의 신입생이 학칙준수와 정진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신입생은 3개월의 기본교육을 거쳐 6월부터 1년 과정을 시작한다.

주지이자 학장인 대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부처님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좋게 생각하고 좋게 인정하고 좋게 행동하고 그렇게 되면 다 복이 되고 그야말로 좋은 인연이 만들어져 간다"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용화사 충북불교대학 제31기 입학식 개최



청주 용화사 부설 충북불교대학(학장 각연 스님, 용화사 주지)이 3월 4일 경내 관음전에서 제31기 입학식을 열고 123명의 신입생을 맞았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각연 스님, 지장 스님(용화사 템플스테이 원장), 범성 스님, 조기태 신도회장, 박청규 불교대학총동문회 회장, 신입생을 비롯해 용화사 신도회 임원진과 회원 및 기수별 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장 각연 스님은 환영사에서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마음을 닦고 인생의 지혜를 찾는 과정"이라며 신입생들에게 꾸준한 정진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영동 생활불교실천대학 9기 졸업 · 10기 입학식



영동 생활불교실천대학(학장 종림 스님)이 3월 2일 9기 졸업식 및 10기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졸업식에서는 29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입학식에서는 53명의 신입생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림 스님, 원오 스님(원오사 주지)을 비롯해 손창희 영동군불교신도연합회장, 장인학 영동불교신도연합회고문 등이 참석했다.

종림 스님은 환영사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 더욱 신심 깊은 불자로 거듭나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가득한 부처님의 인연을 지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천안 마이트리 봉사단 부석사 관음상 친견



마이트리 봉사단(단장 혜정 스님)은 3월 5일 천안서부역 무료급식소에서 짜장밥 무료급식 행사와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친견 일정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무료급식 행사에서는 마이트리 봉사단이 직접 조리한 짜장밥 등을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 150명에게 전달했다.

봉사단은 나눔 행사 후 서산 부석사로 이동해 100일 동안 부석사에 모시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친견했다.

이날 부석사 주지 원오 스님은 "환수 운동을 위해 10만인 서명을 받고 있다"며 "관세음보살좌상이 꼭 돌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